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하루에 계란 2개 먹기

(사)도오쿄(東京)난업(卵業)협회는 8월 26일 도오쿄에서 「계란으로 옷기 대작전·도오쿄 대회」를 열었다.

「계란으로 옷기 대작전 일본 중단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난업협회 회원과 젊은 계란관계자가 다수 참가하여 계란의 훌륭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판매대금은 여행자금으로 활용되며 관련 상품 판매와 사진 촬영, 빙수서비스, 고무계란을 집은 수만큼 장난감이나 계란을 선물하는 「계란집기이벤트」, 문제를 맞춘 사람에게 계란을 선물하는 「계란 양케이

트」, 계란에 관한 10가지 문제에 참가자가 도전하는 「계란점정」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계란과 콜레스테롤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건강에 좋은 계란을 1일 2개 이상 먹읍시다.」등을 호소하였다.

이번 대회는 근처에 있는 다른 행사장에 참가했던 주부와 가족 등 약 1,000명이 참가하여 신선한 계란을 선물 받은 주부들은 「뜻밖에 계란을 무료로 받아 정말 감사한다.」라고 웃는 얼굴을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생산자재 인상으로 계란 1kg 생산비 330원 증가

일본계란생산자협회의 8월 21일 자료에 의하면 관동지역에서 50만수 규모의 양계장에 필요한 자재의 인상 사례를 소개하여 생산자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 현재, 배합사료가격이 1년간 11만5천원(농협)인상되어, 병아리부터 사육 전 기간 동안의 사료 요구율을 2.4로 계산하면 계란 1kg의 생산비는 276원(계란 10개 1팩은 177원)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 계란 포장팩은 1매 30원에서 37원으로 인상되어 계란 1kg당 11원(계란 10개 1팩은 13원), 계란운송비도 휘발유 가격 등의 인상으로 1kg 100원에서 120원으로 20원 인상, 위생비도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의 검사비용 등이 증가하여 계란 1kg당 20원(1팩 130원) 상승하여 사료가격을 포함한 제반자재의 인상분은 계란 1kg당 327원(계란 10개 1팩 210원)이 된다.

#### 퇴비화 촉진 시스템「레스큐 45」 약취 저감에 높은 효과

양계장은 주변의 택지화가 진행될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항상 악취나 파리발생 방지에 여러 가지 대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된 것으로 효소와 고온균을 사용한 퇴비화 촉진 시스템 「레스큐 45(resQ 45)」를 사용한 (유)시카가와(鹿川)그린팜 농장에서는 퇴비사의 약취저하 등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입하여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



목 71

**아이지깡(愛知縣)농업시험장 개발 「미쯔가토종닭(三河地どり)」판매**

토요하시(豊橋)사료가 중심인 마루토그룹의 계육부분을 담당하는 마루토식품은 9월부터 신상품 「미쯔가토종닭」을 시험 판매한다.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어 「고기가 씹히는 치아의 느낌」 「맛」 등을 추구한 고품질의 닭고기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 회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나고야코친」 등 토종닭과 브랜드 닭의 판매를 특화시켜 판매실적을 높이고 있다.

「미쯔가토종닭」은 아이지깡 미쯔가지방에서 메이지(明治)시대 이전부터 사육되던 재래종의 「미쯔가중」을 기본으로 아이지깡농업시험장에서 개량을 거듭하여 적색 코니쉬종과의 교배에 의해 「미쯔가토종닭」을 개발한 것으로 마루토식품은 아이지깡농업시험장과의 공동연구로 실용계사육부분과 도계부분을 담당하여 사육성적의 정리와 품미테스트 등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토요하시사료의 양계시험장 인접지에 「미쯔가토종닭농장」을 건설하여 특정 JAS에 따른 사육관리를 하여 마루토도계장에서 도계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금년도의 시험판매수수는 월간 2,000수 수준이며 아이지깡농업시험장과의 공동연구로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지면 월간 10,000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가까운 장래에 특정 JAS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판매지역은 관동에서 관서시장으로 9월 상순 백화점에서의 판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계육전문점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회사 영업부장은 「아이지깡농업시험장, 부화장, 사육농장, 도계장 등 많은 관계자가 힘을 합친 것으로 나고야코친과 같이 아이지깡을 대표하는 특산 닭으로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 개정**

농림수산성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의 변경에 대하여 기금질병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1) 발생예방대책으로서 양계장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새망의 설치방법이나 소독약의 사용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바이러스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합한 방역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에 충분한 연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3) 이번 보조적인 진단방법으로 활용되는 신속검사법(간이키트)에 대하여 통보직후의 방역대책에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4)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에 대한 청정성확인검사, 발생 후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역학조사, 감염경로의 구명에 필요한 현지조사의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관점에서 발생시의 대응체제 정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이동제한의 적용에 대해서는, 만연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발생 후 이동제한 구역이나 범위 등은 현재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재확인하여, 도계장, 부화장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위생관리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이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제한 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의 내용변경에 관련이 있어 8월 21일 농림수산장관이 변경내용을 가축위생부회의에 자문한 것이다(계명신문 발췌).